

趙州因問，某甲入叢林，乞師指示。州云，喫粥了也未。僧云，喫粥了也。州云，洗鉢盂去。其僧有悟。無悟曰，趙州開口見膽，露出心肝。者僧聽事不真，喫粥作糞。頌曰，只爲分明極，蒜令所得遲。早知燈是火，飯熟已多時。

한형조 무문관 탐방

10

조주의 바릿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제가 수행 총림(叢林)에 들어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조록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조주가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럼, 바릿대를 씻어야지."

*나 해가 말한다. "조주가 입을 열어 쓸개를 내보이고, 심장과 간을 몽땅 드러냈다. 그런데 이 승려는 알아듣지 못하고서 종(鐘)을 향아리(響)라 하고 있다."

*승하여 가되, 너무도 분명해서, 오히려 깨닫기 더디다. 등잔이 곧 불인 줄 알았던들, 밤에는 별씨들이 들었을텐데.

옛날 중국에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해가 저물어 밤을 지오려고 보니 숲가마에 불씨가 없었다. 등불을 들고 십리밖이웃에 불을 구하러 갔다. 이웃은 불씨를 건네주지 않았다.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을 두고 어찌 이리 먼길을 왔는가." 등잔이 곧 불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식구

주는 다시 한번 노파심(老婆心)의 속을 뒤집어 보인다. "그럼, 가서 바릿대를 씻어야지." 그래서야 그 스님은 얼핏 짚이는 바가 있었다. 조주가 지금 일대사인연을 벽력처럼 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조주 종풍의 특징은 그 일상성에 있다. 방가사의 표어대로 '물을 길고 씻을 저내는 그곳'이 다 들어난 신통(神通)이고 묘용(妙用)이다. 가고 오고 앉고 누움, 밥을 먹고 일하고 잠자는 바로 그 일상의 행위 속에 진정한 도가 숨쉬고 있다. 조주가 도(道)가 무엇이라고 묻자, 스승 남전(南泉)은 지체없이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라고 일렀다. 그럼 참 쉬웁게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막막한 공간 속으로 밀어넣는다. 어떻게 일상과 경상의 마음으로 '들어선단' 말인가. 현사(玄沙)여, 대체 무슨 수로 저 졸졸대는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가. 남전은 말한다. "들어갈 곳은 없다.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화살은 서역을 남겼다."

한 승려가 어느 대덕(大德)에게 물었다. "스님께 서는 어떻게, 도(道)를 닦고 계십니까." "밥 먹고 잠 자지."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누구나 다 도를 닦는다 하겠군요."



일상속에 道가 숨쉬고 있는데...

"죽은 먹었는가... 그럼 바릿대를 씻어야지"

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들고 있을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는 세상의 온갖 스승들을 찾아 길을 나선 선재(善才)의 구도기가 실려 있다. 부처와 나한뿐만 아니라 거지와 창녀에게까지 삶의 진실을 구하던 그에게 마침내 진리의 보살이 현신한다.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처음 길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서양에도 비슷한 모티브가 있다. 메테를링크의 파랑새 이야기.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난 사람이 세상의 온갖 종파와 신산(辛酸)을 겪은 다음, 지치고 쇠잔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집 뜰의 나무가지 위에서 금빛으로 울고 있지 않은가.

선은 말한다. 진리는 너와 아주 가까이 있다. 너무 가까워 오히려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只爲分明極，蒜令所得遲).

"죽은 먹었는가?" 밥을 먹는 행위가 어찌서 공양(供養)이라는 성사(聖事)로 불리는지 생각해본 사람이 있는가. 조주는 그 단순하고 심상한 물음 속에 진리의 심장과 간담을 남김없이 담아보였다. 그런데 학인은 그 소식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아침 죽이야 먹었지요. 그런데 진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눈을 멀뜨거린다. 종을 두고서는 향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갈피 못잡는 학인에게 조

그렇지 않네. 보통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번뇌에 시달리고 있고, 잘 때 잠들지는 않고 온갖 망상에 가위눌리고 있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질 때 그곳의 광증(光風)이 풍류처(風流處)다. 그밖에 아무런 기특한 일도 없다. 선은 알고 보면 참 싱거운 것이다.

참고삼아 용어 한 둘을 짚어본다. 총림(叢林)은 '총총히 백백한 숲'이란 뜻. 산스크리트 빈디아바나(vindhyavana)의 의역으로 수행자들이 나무숲처럼 모여 있는 도량을 가리킨다.

바릿대는 밥그릇을 말한다. 발우(鉢盂)는 산스크리트 파트라(patra)의 음역이다. 세존께서는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하시면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이 그릇 하나와, 옷(가사) 한 벌, 머리를 밀 삭도, 그리고 마실 물에 흑 때 있을지도 모를 벌레를 걸러낼 도구 하나만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물면 원치 않는 짐착이 생길까봐 한곳에 사흘을 머물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음식은 철저히 탁발에 의존하게 했다. 빌어먹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의 소멸을 증거하는 위대한 수행, 즉 브라마차리아(brahmacarya)였던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20)

부처님 재세시에 기바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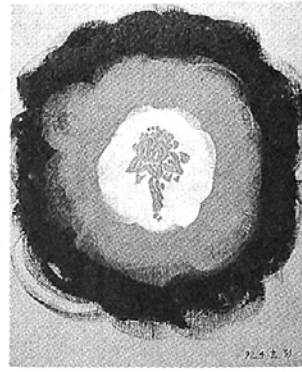
의술이 매우 뛰어나서 의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였다. 부처님께 귀의한 후로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건강을 도맡아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탄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기바카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라고 칭찬을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왕은 부처님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기껏해야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이지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나고 죽음을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양의라고 대답하였다. 기바카의 말처럼 부처님은 지혜로써 모든 존재의 병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신 분이시다.

특히 불교교리중 가장 대표적인 교설이라고 알려진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이 의사와 같은 진단과 처방으로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성제란 네가지 고귀하고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이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수렴된다"는 <중야함경>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사성제의 진리가 가장 성스럽다"는 <법구경>의 말씀은 불교교리 가운데 사성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준다.

사성제의 첫째는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는 전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고통제(苦聖諦)라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내건 진단의 결과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택(苦海)이라고 할 만큼 중생들로부터 고통을 발견하시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덟가지를 꼽으셨다.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죽는 고통,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되는 고통, 다섯가지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의 치성한 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이다. 사성제가 이렇게 고통이



◇현정 작 '자기를 바르게 보면...'

부처님이 설한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

- 1. 생로병사 등 갖가지 괴로움
- 2. 집 고통의 원인 갈애와 무명

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까닭은 세상과 인생을 싫어하는 염세적 시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생들 자신의 문제로써 제기하고 어찌하면 좋을지를 알려준 다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의 중생에 대한 관심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관심이 있듯 고통을 여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고통의 원인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불교와 수학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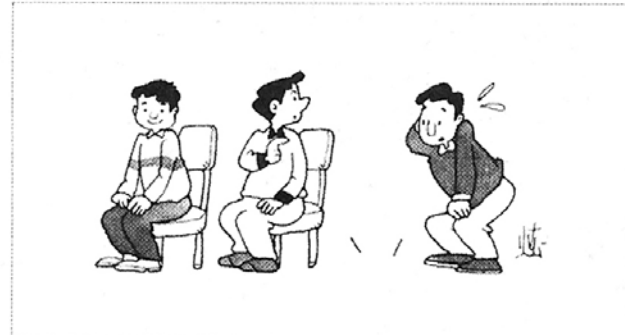
불교와 무한 ②

김용운

최근 필자는 BBC방송이 제작한 '식물 세계'를 보면서 수십 시간을 1초로 단축하여 식물의 성장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뭇잎은 마치 살아 있는 문어발처럼 순간마다 뻗어 나가고 잎사귀가 돌아나자 금방 꽃이 피고 진다. 식물의 일생이 그야말로 일장춘몽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의미를 이 필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광속도로 1억 광년에 걸치는 지름을 갖는 거대한 성운도 한 점의 우주 지도에 그려질 때는 한낱 점에 불과하다. 현대 과학의 발달은 제행무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불교 철학에서는 일찍이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했다.

여러 부처님을 공양함에 있어서 한끼(一食) 사이에 모두 무량(無量), 무수(無數)의 여러 부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각(正覺)을 얻지 못한다. (무량수경)

여러 부처님에 대한 공양, 곧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한 수조 광년의 시간·공간의 무게를 자각하는 일이다. 그것



불교는 무수억 인연 직관으로 파악

은 잠깐의 시간(일식 사이)에 엄청난 인연에서 얽힘을 깨닫고 시간으로 보는 순간, 공간으로서의 점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작업이다.

이 순간 나를 에워싸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인연의 얽힘은 무수억의 생명 의지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이 무서운 인연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그 무게에 압도당할 것만 같다. 하지만 불자는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를 응시하며 순간마다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했다.

지난 주 본란에서 근대 수학의 무한에 대한 이해는 "무한이란 부분과 같을 수 있는 것"이며 불교적 '일즉 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과 상통함을 설명했었다. 개념의 결보기는 수학과 불교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수학의 무한은 유한 개념의 연

장선상에 무한을 정의한다. '무한'이란 한마디로 막연하게 여겨 왔던 개념을 자세히 분류하고 이들 사이에 대소 관계가 있고 비교를 가능케 한 것이었다.

"무한은 유한의 연장선상에서 정의한다" 이 뜻은 무한의 유한화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한적인 대상은 많도 적다 등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다. 가령 A라는 집합은 10명의 학생의 모임이고, B라는 집합은 9개의 책상의 모임이다. 지금 A(10명의 학생)와 B(9개의 학생) 사이에 어느 쪽이 많은가를 보기 위해서는 학생 한 사람마다 의자에 앉게 하면 된다. 이것은 1대 1의 대응이라 한다.

이때 한 학생이 의자에 앉을 수 없을 때는 학생 수가 의자의 수보다 1개 더 많다고 한다. 1대 1의 대응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택성제(苦集聖諦)라 한다(줄여서 집성제).

집성제는 환자에게 병이 생긴 이유에 있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등의 온갖 고통을 받는다는 그에 따른 근본적인 까닭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훌륭한 의사이신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진찰하신 결과 두가지 원인 때문이었음을 아셨다. 그것이 바로 갈애와 무명이다. 여기서 갈애는 욕망, 무명은 어리석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둘 가운데 무명은 갈애보다 훨씬 더 뿌리깊은 병으로 고통의 근본이 된다. 엄밀히 말한다면 무명으로 인하여 갈애가 있게 되고 갈애로 인하여 생·로·병·사·유·비고노(憂悲苦惱)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게 됐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일체의 고통이라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명의 타파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무명을 끊지 못하고 갈애를 계속 일으키는 한은 반복되는 윤회와 고통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갈애를 소멸하고 무명을 타파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록 부처님이나 신을 향해 정성을 올리고 기도를 아무리 정성껏 했더라도 그 마음의 욕망을 쉬지 못하는 한은 고통은 끝내 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완전히 성립하면 두 집합의 개수는 같으며 그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과부족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요소를 지닌 집합들 사이의 비교도 이와같이 '1대 1의 대응' 방법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유한적인 비교 방법을 그대로 무한적인 대상에 적용시킴으로써 무한들 사이에 대소, 같음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1, 2, 3, ..., n, ... 자연수의 집합은 2, 4, 6, ..., 2n, ... 짝수의 집합과 1대 1의 대응이 성립하여 같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가령 0.0123..., 과 같은 것의 수 집합, 일반적으로 0, a, a, a, ..., a, ...의 수의 모임은 정수 전체의 집합보다 큰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와같이 무한이라고 한마디로 처리해 온 대상들 사이에도 유한 세계의 수처럼 대소 여러 종류의 수가 있다.

그러나 불교적인 무한은 이들 여러 종류의 무한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원리를 파악했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촬영법에 묘사된 수십 년간의 나무의 성장과정이 몇 초만에 묘사될 때 그 나무의 참모습은 오직 '지금, 이곳' 일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인간 그 존재 양식인 무량, 무수억의 부처님의 생명 의지를 직관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사찰 · 수련원 · 휴양시설 · 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 면적 : 1,352평
● 건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상담문의 : (051)516-9997

정성과 일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울푸레나무 288,000원

고한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풀잎이 곱조롭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울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 목기 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입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표 임동주 합장

지사모집

천연옥 불상조성 전국 지점을 모집합니다.
당사는 미얀마(버어마)·중국 등에서 순수 부처님과 불탑등을 천연옥으로 조성하는 무역 회사로 부산에 본사를 둔 무역 회사입니다.

영업품목

108불, 삼천불, 1만불 등
천연옥, 염주, 옥온돌방

- 대상 : 불교용품 및 각 지역 불교계에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재력을 약간 겸비한 분
- 지역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등 기타지역

(주) 금강옥불
(주) 금강여행사 현지 법인

대표 이상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동 190-24
☎ (051)802-4696~8
FAX (051)802-6288